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19) ~26년 6월14일 주일말씀

이사야29장13.'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태복음10장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 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28.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여기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

베드로전서5장7.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 가족으로 양육 받는 선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려는 것임

누가복음12장→인생의 시간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 두려고 허락된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되도록 허락한 시간임

13.~내 형을 평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14.~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들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쌓아 두리라

19.~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20.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고보서4장→내 삶의 주인, 살고 죽음, 성공 실패 그분의 손에 달림→주권을 인정→오늘의 시간 동안 언제나 겸손히 뜻을 구하라

13.'오늘이나 내일 이리이러한 도시로 가서 일 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밀천 잡아 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14.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

15.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16.그러나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벌이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17.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6장 2.~자식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다.=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날 때부터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데로만 달려 갔다.

8.노아만은 여호와를 호모하게 해드렸다. 9.[노아를 구해 내시려 하다]=소돔과 고모라에서 외인 롯을 구원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11.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 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13.~ '폭력, 고문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

그래서 나는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를 한척 지어라. 그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배 안팎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여라 22.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로마서1장→1장18절~2장에 반복되는 것→말씀(6번), 주장하면서,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

28.~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29.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히브리서11장→주전 2400년 전에 노아는 매일 허락 받아 사는 생활로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본보기다.

7.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자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 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매일 허락을 받아 순종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0.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13.~그들은~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14.~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39.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40.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1장

4.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속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11장의 믿음의 전진들=그림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6.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놓으셨다  
7.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한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짊어지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한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4. ~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함으로 생각하였다.  
에베소서 2장 4. 공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보좌 우편 = 영광에 참여  
= 로마서 8장 17.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18.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로마서 8장 37. ~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38.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 합니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창세 전 한 가족 삼으시려는 계획(사랑에 쌓여있음) = 그림자** ⇒ 2000년 전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 **사랑의 나타남, 사랑의 확증, 사랑의 가르침, 참사랑 = 아가페 사랑, 사랑의 극치 = 절정,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쏟아부음, 큰 사랑**  
⇒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 = 창세 전 한 가족 삼으심의 계획을, 율법을 죽음과 부활로 확증 완성 하심.** ⇒ **새 계명을 명하심**

◆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외워, 지식으로 가르쳐도 창조주 아버지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심의 위대한 사건 = 아가페 사랑이야기를 (= 육아, 양육, 사랑일지) 발견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 빠져 살지 못하면 영광과 관계 없다.**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을 발견 ⇒ 경험으로 깨닫고 (= 양육) ⇒ 내 생활의 열매로 사랑을 진행 완성해 감. 성경을 살의로 나타내야 말씀이다.**  
⇒ **아가페 사랑의 이해? 감정적, 인간적 사랑 아님, 죄와 불의, 방종, 정과 욕심을 용납지 않는 아들들 죽이신 공의의 사랑**  
~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닮은 마음이 변화된 새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라.** ⇒ **다시는 범죄치 말라.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요한 1서 5장 2절 ⇒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면서 가야 한다.**

⇒ **새 계명은 선한 목적이라도 성경을 벗어난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 (= 가난한 자, 소외 된 자, 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 1순위가 아닌 지체들 부터다. ~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  
에베소서 2장 20.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21.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습니다.  
22.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1장 9. ~ 어린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10. ~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 ~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 **양육? 불시험, 믿음의 연단, 사랑을 깨달음 = 고난 = 격려며, 친자의 증거 ⇒ 징계 = 채찍? 불순물 제거 = 정금판드심, 옛사람 ⇒ 새사람 됨**

5.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주께서 네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네 잘못을 책망하시**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 **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7. ~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8. ~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9. 비록 우리를 낳아 준 아버지가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 우리를 낳아 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11. ~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뵈지 못할 때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22. ~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 하늘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 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23.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 **고린도후서 6장 4~10절 ⇔ 계시록 3장 14~20절**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 **실체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 허락 받아 한 가족 =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양육 받음에 집중함**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팻돌질을 하고 있으며 ~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주실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빌립보 3장 18. ~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9.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12.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산되고 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13.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 =시편78편31.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시어 **그 장정들을 쓰러뜨리셨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젊은 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 32.어전히 그들은 거뜬거뜬 집만 지었다.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 34.**그들 가운데에 몇몇을 고꾸라뜨리시자** 비로소 나머지가 주께로 돌아섰다.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열심히 찾았다.
- 35.~**깨달았다.** 36.그러나 **입을 열면 여전히 하나같이 거짓말이요 하는 말마다 진실 된 것이 없었다.**
- 37.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주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도 못하였다.
- 38.그래도 주께서는 **측은한 것 보시기 마음 아파 허물이 있어도 덮어 주셨다.** **그들을 쓸어 버리지 않으셨다.**  
**수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도 참으셨다.** 분하게 여기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셨다.
- 39.**사람은 한낱 살덩이임을 아시기에.**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숨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 40.거친 들에서 **몇 번씩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던가 !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가 !**
- 41.**몇 번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찌하시나** 두고보자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애타게 하였지.
- 42.**주님의 손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수들 손아귀에서 **저희를 건져내셨던 그날도 새카맣게 잊어버렸으며**
- 43.애굽 땅 소안 들녘에서 보이셨던 표적도 베푸셨던 기적도 **다 잊어버렸지.**

=로마서9장29.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고모라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11장4.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만이 아니다.~너 말고도 7천 명이나 있다'~5.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2장 6.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일을 해서 얻는 것은 선물은 아니다.  
4.**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5.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퍅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6.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음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와 한 가족으로 하늘에서 함께 누릴 영광 위한 아가페 사랑**  
=베드로후서3장 9.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히브리서3장  
1.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0.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2.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10장  
1.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창세기3장 21.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다.  
창세기4장 2.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히브리서11장4.아벨이~순종하여 가인의 제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12장 13.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 **내가 피를 흘릴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13장 9.**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피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함께 할 때에 네 입에 있게 하라 ~

5.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10.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불평~11.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이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12.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13.**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쳐 싸워 왔기 때문입니다.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유혹적 시험이 아닌 양육이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써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14.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심하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요한1서5장 **예수님 자리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두 마음을 품는 것**  
18.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마가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1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20.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유일하고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

21.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 버리십시오.**  
◆우리는 출애굽 받은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을 향하여가는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욕망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일들에 빠지지 말고(비전,꿈,사명=세상 풍조)오늘이란 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양육에 충실하라.**(=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뜻?

=오늘 하루라는 날에 양육에 충실해야 할 목적과 내용?  
예수님의 재림과 나를 하늘로 부르시는 날과 그 후에 함께 누릴 영광(=한 가족,=영생=하늘 소망)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자녀다음=천국백성 다음=하늘 시민권자 다음 즉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을 담은 새 사람=옛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로 정금되는 양육에 충실하며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에 대한 의미=노아가 비를 생각지 않고 예수님이 매일 주시는 설계도만큼만(=허락) 방주를 지움  
⇨허락 하심의 기본 기준은 이미 밝혀 놓은~하라, 하지 말라, 행하라는 말씀이다. 영적 내용이지 육적,개인적인 욕망적 요소가 아님